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

김 정 진*

1. 서론

1) 문제제기

1995년 정신보건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정책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의 추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더 이상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응급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에만 단기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는 자신이 생활하는 친근한 환경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심각한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으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낮병원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성인남성이며, 여성의 이용이 있다하더라도 주로 미혼여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특성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는 사례관리, 질병관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리, 사회기술훈련, 생활훈련, 여가활용훈련, 직업재활훈련, 가족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대상이 위와 같이 제한되다 보니, 결혼한 성인 정신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도움과 욕구는 간과되어져 왔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여성이 남성 보다 늦게 발병하기 때문에, 여성이 정신장애 발병 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남성 보다 높다고 한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정신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정신장애남성 보다 높다고 한다(Gottesman 1991).

남정자(1994)의 의료보험 급여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집단인 30~39세, 40~49세 사이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여성은 각기 169,968명과 151,628명이었다. 이 중에서 여성미혼자 11.9%(통계청 1996)를 제외한다면 약 28만 4천여 명의 어머니가 어떤 유형으로든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신장애 중에서도 특히 기분장애, 정신분열장애, 불안장애 등은 자녀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Catherin and Gotlib 1991; Christine 1991; Liselotte and Marie 1993; Elizabeth 외 1993; Piatana 1990; Bonnie 1997). 남정자(1994)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분포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약 98.6%(317,100명)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 여성미혼자 11.9%를 제외한다면 약 2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자녀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사회에서 가장 가치있고, 의미가 크며, 그만큼 부담도 높은 역할이다. 더구나 어떤 양육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자녀의 성장 후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의 특성상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심화되면 스스로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인간관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며, 평소와 다른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는 일반여성 보다 훨씬 위험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일간지 사회면에 간헐적으로 보도된 우울증 어머니의 자살, 자녀살해, 동반자살 등의 기사(중앙일보 1999. 1. 17; 한겨레신문 1999. 2. 20; 경향신문 1999. 7. 26; 동아일보 1999. 8. 21)는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 양육문제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지원함은 정신장애여성의 사회적 역할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서 자녀의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의 예방을 의미하므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주요과제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신장애여성의 자녀양육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연구목적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여성 자녀들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문제와 지원체제로 대표되는 심리사회적 특징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의 요인과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상적으로 정신장애를 진단 받은 여성과 진단 받은 적이 없는 일반 여성과의 양육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사회적 특징 및 양육행동 요인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정신장애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의 정도와 방향은 어떠한가?

질문 2. 정신장애여성과 일반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양육관련변인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과 관련하여 주목받아왔다.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Abidin 1983; Conger 등 1984),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을 매개로 하여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즉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머니의 우울, 불안 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우울, 불안은 어머니의 부적

절한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Abidin(1992)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역할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녀의 특징, 어머니의 특징, 사회적 상황의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Abidin의 양육스트레스 모델은 이러한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양육스트레스가 역기능적인 부모역할 수행의 결정인자로 본다.

(2) 심리사회적 특성의 개념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특징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징으로서의 개인적 인성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이 포함된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인성으로서 부모효능감이 있다. 부모효능감은 Abidin(1990) 및 Mondell과 Tyler(1981)에 의해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중시되었다. Abidin(1990)은 부모효능감이 부모 스스로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부모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Bandura(1977)는 이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기대, 신념, 사고, 동기유발과 흥미 등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양이 증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개인은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사회적 특성에는 남편협력과 주위도움 요인이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 요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특성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Belsky의 과정모델과 Abidin의 다요인적 모델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Belsky(1984)의 과정모델은 부모의 성격이나 아동의 특성, 부부관계와 같은 요인들이 발달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Abidin(1990)의 다요인적 모델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과 남편의 협력과 같은 요인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 즉 자녀양육에 있어 남편의 정서적, 신체적 지지는 부모역할수행에서 촉진적인 기능을 하며,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역할수행에 정적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3) 양육행동의 개념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회적 역량

(1) 사회적 역량의 개념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Inkeles은 어느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Heath는 효율적인 행동과 성공적인 적응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감에 의한 효과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 Ainsworth와 Bell은 타인에게 협력을 얻어내는 능력, Ford는 사회적 상황에 타당한 방법을 사용하며 발달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각각 정의하였다(구순주 1996, 재인용).

이상으로 살펴본 여러 정의의 공통점은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된 사회기술 및 사회적응, 사회적 질서에 대한 순응성과 관련된 협력 및 동조, 그리고 사회적 목표수행과 관련된 과업성취 및 효율성이 포함된 능력(*ability*)과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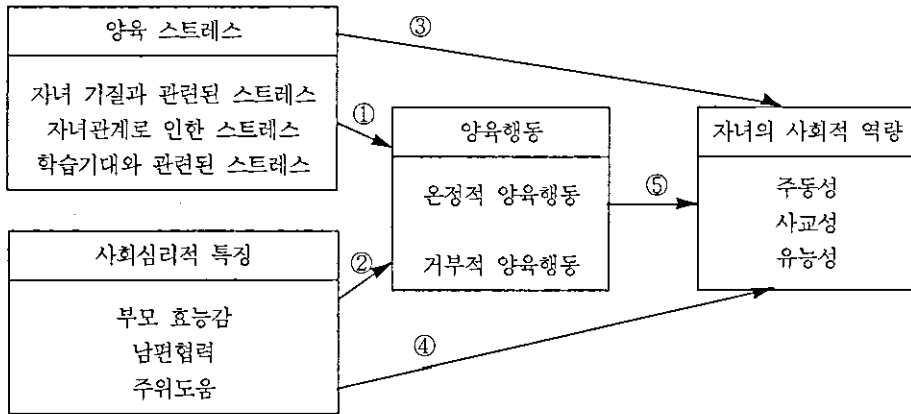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설정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어머니의 정신장애가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역량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남편의 협력, 사회적 지지 등의 어머니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사회적 특징과, 자녀 자신의 기질 및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신장애여성의 주위도움, 남편협력, 부모효능감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자녀의 기질,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학습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이 독립변수들이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이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 가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은 양육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어머니의 양육행동요인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특징,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정신장애여성의 경우 정신분열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전국 병

의원 정신과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기의 여성으로 담당 주치의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유의표집하였다. 병의원의 소재는 서울특별시 10곳, 인천경기 4곳, 대구광역시 4곳, 부산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3곳,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 2곳으로 모두 21개 병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설문응답은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직접 설문지에 대한 설명과 응답요령을 교육하여 작성케 하였다. 진단별 분포의 빈도분석 결과, 정신분열장애 96명, 주요 우울장애 40명, 양극성 조울장애 30명에 비해, 불안장애 12명, 신체화장애 11명, 알콜리즘 4명, 기분부전장애 3명, 적응장애 2명, 망상장애 2명, 급성스트레스장애 1명 등은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가 작아 주요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정신분열장애, 주요 우울장애, 조울장애의 166명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일반 여성의 경우는 2000년 4월 8일 까지 먼저 회수한 정신장애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2000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 까지 서울의 강북에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동대문구 소재의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기 2학년과 1학년을 한 학급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또한 서울의 강남에서 비교적 다양한 계층이 모여있는 영등포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1곳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3,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1학급씩 추출하였다. 총 270부가 배부되어 238부를 회수하였으며, 예비조사 5부를 포함한 총 243부 중 이혼이나 사별한 사례, 정신장애나 기타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된 사례 및 응답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한 사례 등 37명을 제외하고 20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이론변인	측정도구	문항수	점수의 범위	α
양육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	9~45	.71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	8~40	.832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	3~15	.765
심리사회적 특징	부모 효능감	6	6~30	.802
	남편의 협력	13	13~65	.921
	주위 도움	11	11~33	.911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 행동	12	12~60	.873
	거부적 양육행동	9	9~45	.811
사회적 역량	주도성	8	8~40	.866
	유능성	7	7~35	.835
	사교성	5	5~25	.817

4. 연구의 결과

정신장애여성과 일반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정신장애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교육정도가 더 낮고, 가족수입이 더 낮았으며, 취업률이 더 낮았다. 남편의 경우도 일반 여성의 남편에 비해 교육정도가 약간 낮고, 자영업 종사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더 낮았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정신장애 여성이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장애유무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정신장애여성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정신장애여성 자녀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정신장애여성 자녀 보다 사회적 역량의 세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여성의 교육정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세 요인 모두와,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정신장애여성이 생산직을 갖고 있을 때와 주부일 때에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 부모효능감이 낮았다. 일반 여성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측정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 양육행동 요인, 자녀의 사회적 역량 요인에 정신장애 여성과 일반 여성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모두가 일반 여성보다 정신장애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징에서는 부모효능감, 남편협력, 주위도움 모두에서 일반여성에게 비해 정신장애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남편협력의 평균의 차이가 가장 컸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서는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 모두에서 일반여성에게 비해 정신장애여성의 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에서 사교성의 평균차이가 가장 컸다(〈표 2〉 참조).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 분석

변 인	정신장애 여성(N=166)		일반 여성(N=206)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녀의 성	남 자	90	54.2	105	50.9
	여 자	76	45.8	101	41.1
자녀의 나이	12세 이하	109	65.7	130	63.2
	13~14세	57	34.3	76	36.8
남편 연령	26~30세	2	1.2	4	1.9
	31~35세	12	7.2	62	30.1
	36~40세	44	26.5	114	55.3
	41~45세	58	34.9	26	12.6
	46세 이상	50	30.1		
어머니 연령	26~30세	13	7.8	0	0
	31~35세	30	18.1	16	7.8
	36~40세	56	33.7	122	59.2
	41~45세	46	27.7	59	28.6
	46세 이상	21	12.7	9	4.4
남편학력	중졸이하	37	22.3	19	9.2
	고 졸	81	48.8	73	35.4
	대졸이상	48	28.9	114	55.3
어머니학력	중졸이하	58	34.9	29	14.1
	고 졸	80	48.2	119	57.8
	대졸이상	28	16.9	58	28.2
어머니종교	불 교	39	23.5	58	28.2
	기독교	66	39.8	59	28.6
	천주교	24	14.5	20	9.7
	기 타	1	.6	1	.5
	없 음	36	21.7	68	33.0
남편종교	불 교	23	13.9	56	27.2
	기독교	31	18.7	37	18.0
	천주교	18	10.8	16	7.8
	기 타	8	4.8	2	1.0
	없 음	86	51.8	95	46.1
가족 형태	부부+ 자녀	131	78.9	188	91.3
	조부모+ 부부+ 자녀	135	21.1	18	8.7

〈표 1〉 계 속

변 인	정신장애 여성 (N=166)		일반 여성 (N=206)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남편직업	생 산 직	22	13.3	19	9.2
	서비스직	12	7.2	10	4.9
	사 무 직	26	15.7	37	18.0
	관 리 직	17	7.2	21	10.2
	자 영 업	52	31.3	63	30.6
	전 문 직	17	10.2	49	23.8
	영 업 직	10	6.0	6	2.9
	무 직	10	6.0	1	.5
어머니 직업	생 산 직	11	6.6	12	5.8
	서비스직	7	4.2	10	4.9
	사 무 직	4	2.4	6	2.9
	관 리 직	0	0	1	.5
	자 영 업	11	6.6	31	15.0
	전 문 직	5	3.0	18	8.7
	영 업 직	0	0	8	3.9
	주 부	128	77.1	120	58.3
가족 수입 (만원)	100 미만	48	28.9	11	5.3
	100~199	72	43.4	79	38.3
	200~299	28	16.9	67	32.5
	300~399	7	4.2	31	15.0
	400~499	7	4.2	11	5.3
	500 이상	4	2.4	7	3.4
주거 상태	자가	88	53.0	128	62.1
	전세	59	35.5	65	31.6
	월세	10	6.0	4	1.9
	기타	9	5.4	9	4.4
출생순위	1	100	60.2	127	61.7
	2	51	30.7	68	33.0
	3	10	6.0	10	4.9
	4	3	1.8	1	.5
	5	1	0.6		
남편 질병	건강	137	82.5	192	93.2
	고혈압	3	1.8	4	1.9
	당뇨	3	1.8	3	1.5
	심장질환	2	1.2	1	.5
	간질환	7	4.2		
	소화기 질환	12	7.2	6	2.9
	신경계 질환	1	.6		
	알콜 중독	1	.6		

〈표 2〉 정신장애 유무에 따른 측정변인별 점수의 평균 비교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t값 (p:유의확률)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08(.65)	2.41(.61)	10.183(.000)***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2.24(.75)	1.87(.61)	5.164(.000)***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2.61(.92)	2.24(.82)	3.987(.000)***
심리사회적 특징	부모 효능감	3.04(.78)	3.53(.58)	-6.621(.000)***
	남편 협력	3.03(.87)	3.76(.66)	-8.893(.000)***
	주위 도움	3.02(-.91)	3.72(.75)	-8.042(.000)***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	3.56(.63)	3.87(.53)	-5.222(.000)***
	거부적 양육행동	2.46(.58)	2.53(.56)	-1.340(.172)
사회적 능력	주도성	3.27(-.74)	3.43(.69)	-2.127(.027)*
	유능성	3.39(.75)	3.57(.63)	-2.400(.004)*
	사교성	3.59(-.77)	3.89(.66)	-3.938(.000)***

* p < .05 ***p < .001

3) 가설검증결과 분석

(1) 가설 1의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모두에서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신장애여성은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일반여성에게는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모두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행동을 함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즉 자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정신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정신장애의 발병과 재발에 스트레스원(stressors)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김규수

1999:58).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은 극적인 생활사건이나, 일상생활로부터의 누적된 자극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앞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문헌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누적된 부담이 개인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발병 또는 재발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정신장애여성의 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일반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점(〈표 2〉참조)과 이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높은 것은 정신장애의 재발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갖되, 특히 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화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3〉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양육행동)	독립변인 (양육스트레스)	영향력(β)과 순위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온정적 양육행동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83(1)	-.406(1)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	-
거부적 양육행동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182(3)	.413(1)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278(1)	.110(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197(2)	.183(2)

(2) 가설 2의 검증 결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효능감과 남편협력에서, 일반 어머니는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 세 가지 모두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부모효능감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beta .34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협력이 beta .245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징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31.2%였

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 13.1%에 비해 매우 높은 설명력으로, 정신장애여성에 있어 심리사회적 특징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 변인임을 말해준다.

일반 어머니의 경우도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같이 부모효능감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가장 높은 영향력(beta .328)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협력(beta .230), 주위도움(beta .141)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징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33.9%였다. 또한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나 일반 어머니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것 보다($R^2 = .131$, $R^2 = .336$), 심리사회적 특징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것($R^2 = .312$, $R^2 = .33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는 그 차이가 커서, 심리사회적 특징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양 집단 모두에서 남편의 협력이 주위도움 보다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양육에 있어 어떤 사회구성원의 지원 보다 남편의 지원이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지원체계라고 한 Belsky(1984)와 Simmons 등(1993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정신장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남편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에서 주위도움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유우영(1998)이 사회적 지지가 많고 양육스트레스원이 적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나 구순주(1996)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향상된다고 한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 어머니와 다르게 일반 어머니의 경우는 주위도움의 사회적 지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 역시 일반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장애어머니의 양육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구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지가 정신장애여성의 자녀의 사회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Eismann, 1985; Perris, 1994)와, 재발이 잦고, 만성화되기 쉬운 정신장애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정신장애 여성의 자녀양육에 있어 주위도움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모두에서 부모효능

감만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가장 높은 부적 영향력(beta $-.344$)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설명력은 15.2%였다. 이는 심리사회적 특징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31.3%)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심리사회적 특징은 거부적 양육행동보다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 요인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설명력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결과는 정신장애여성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행동이 적어지고,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가 매우 절실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4〉 정신장애여성과 일반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이 양육행동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종속변인 (양육행동)	독립변인 (심리사회적 특징)	영향력(β)과 순위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효능감	.345(1)	.328(1)
	남편협력	.245(2)	.230(2)
	주위도움	-	.141(3)
거부적 양육행동	부모효능감	-.344(1)	-.366(1)
	남편협력	-	-
	주위도움	-	-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검증하여본 결과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 모두에서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일부 받아들여져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가장 높은 부적 영향력(beta $-.339$)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부적 영향력(beta $-.197$)이 있었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설명력은 20.2%였다. 일반 어머니의 경우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녀

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가장 높은 부적 영향력(beta -.309)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beta -.234였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설명력은 19.1%였다. 앞의 가설1의 검증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정신장애여성의 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가설 3의 검증과정에서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여성을 위해 앞서 제시하였던 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학습기대와 관련된 서비스가 또한 필요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학교적응 및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의 질에 중요한 예언요인임을 감안할 때, 학습기대에 따른 정신장애여성의 스트레스는 당연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 여성의 경우에서 학습기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큰 부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과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강압적 양육행동에 강한 정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에서도 검증된 바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여성의 양육에 대한 서비스 개발에 있어, 자녀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학업지원을 받도록 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연결을 통하여 개별적 학습지도와 숙제지도,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등의 서비스 지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자녀학업에 대하여 정신장애여성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머니가 자녀지도의 효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하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학업기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조정을 할 수 있도록 면담 서비스도 병행하여야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이 사회적 역량의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회귀분석을 하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의 주도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주도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부적 영향력(beta -.269)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beta-.234였다. 이는 정신장애어머니가 자녀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의 주도성이 적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자녀의 주도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설명력은 21.7%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의 유능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자녀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에서 유능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능성에 대해 가장 부적 영향력이 높은 것(beta -.341)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beta -.241이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유능성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설명력은 24.9%로, 양육스트레스가 주도성보다 유능성에 더 부적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의 사교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에서 사교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부적 영향력이 높았으며(beta -.279), 다음으로 학습기대에 관한 스트레스로 beta -.197이었다.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사교성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6.6%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혜련(199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신장애 여성 자녀의 사회적 역량인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은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하므로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녀의 학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영향력이 모든 요인에서 일관되게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자녀관계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와 학습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일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인 주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니,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주도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도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어머니의 자녀의 학습기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가장 높았으며(beta -.331), 그 다음으로 자녀관계로 인

한 스트레스 beta $-.226$ 이었다. 일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주도성에 미치는 전체 설명력은 18.3%였다. 이는 정신장애어머니와는 다른 결과로 정신장애어머니는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일반 어머니는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주도성에 가장 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에 대한 일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beta $-.42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beta $-.249$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능성에 대해 가지는 전체 설명력은 30.6%였다. 이러한 결과도 주도성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어머니와 영향의 요인은 같으나, 영향력의 순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에 대한 일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만이 자녀의 사교성에 대해 부적 영향력(beta $-.27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교성에 미치는 전체적인 설명력은 11.6%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어머니의 경우 주도성이나 유능성에 대해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영향력과 다른 것으로, 사교성에 대해서만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교성에 부적 영향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일반 어머니의 경우는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교성에 대해서만은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적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어머니의 경우 자녀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가지는 부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정신장애여성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자녀관계와 관련된 부모교육이나 학습기대와 관련된 학습지원프로그램의 지원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가설 3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여보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검증된 요인의 beta값과 순위로 비교하였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

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가장 컸던 것에 비해, 일반 어머니의 경우는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부정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신장애 여성과 일반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요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 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사회적 역량)	독립변인 (양육스트레스)	영향력과 순위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주도성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69 (1)	-.226 (2)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234 (2)	-.331 (1)
유능성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41 (1)	-.249 (2)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234 (2)	-.429 (1)
사교성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79 (1)	-.278 (1)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197 (2)	-

(4) 가설 4의 검증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부모효능감과 남편협력에서, 일반 어머니는 모든 요인에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고(beta .278), 그 다음으로 남편협력 beta .257이었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 전체가 갖는 설명력은 27.6%였다. 일반 어머니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달리 주위도움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높은 영향력(beta .255)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모효능 beta .184, 남편협력 beta .173의 순으로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 전체가 갖는 설명력은 25.5%였다. 이상으로 가설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져서, 자녀의 사회적 역량은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순주(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해서, 본 연구에서 일반 어머니에서는 이에 일치된 결과가 나왔으나, 정신장애 어머니에서는 부모효능감이 가장 높은 정적 영향력이 있고, 주위도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주위도움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가설 2의 검증에서 논하였듯이 정신장애여성에서 주위도움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단순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신장애여성의 주위도움 자체의 취약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주도성 요인에 대해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부모효능감이 $\beta .241$ 로 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주위도움이 $\beta .206$, 남편협력이 $\beta .203$ 의 순이었다. 자녀의 주도성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의 전체 설명력은 27.6%였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유능성 요인에 대해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높아 $\beta .313$ 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남편의 협력 $\beta .230$ 이었다. 주위도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자녀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의 전체 설명력은 23.5%였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사교성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의 세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편의 협력이 $\beta .297$ 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효능감이 $\beta .189$, 주위도움이 $\beta .185$ 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징의 전체 설명력은 26.8%였다. 위에서 자녀의 주도성과 유능성에 대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것에 비해, 사교성에 대해서는 남편의 협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역량 전체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의 영향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던 주위도움 요인이 주도성과 사교성 요인에 대해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주위도움이 자녀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다. 이는 주위도움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인 주도성과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서비스 개발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연결, 관리유지를 도움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설 4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여보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검증된 요인의 beta값과 순위로 비교하였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부모효능감 자체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반 어머니는 주위도움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 모두에서 두 번째로 혹은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라는 것이다. 이는 부모간의 상호 협력과 의견일치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양육에 공백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남편의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어머니와의 협력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6> 정신장애여성과 일반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 요인의 자녀의 사회적 역량요인에 대한 영향력 비교

종속변인 (사회적 역량)	독립변인 (심리사회적 특징)	영향력과 순위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주도성	부모효능감	.241 (1)	.146 (3)
	남편협력	.203 (3)	.188 (2)
	주위도움	.206 (2)	.312 (1)
유능성	부모효능감	.313 (1)	.200 (3)
	남편협력	.230 (2)	.230 (2)
	주위도움	-	.265 (1)
사교성	부모효능감	.189 (2)	.201 (2)
	남편협력	.297 (1)	-
	주위도움	.185 (3)	.274 (3)

(5) 가설 5의 검증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 모두에서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머니는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 .517), 거부적 양육행동은 beta -.167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두 요인이 함께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7.0%로, 비교적 설명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여성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알려 주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면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529로 꽤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9%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더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박성연(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반 여성과 달리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 거부적 양육행동의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영향력도 검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Medinus 1986)에서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부적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온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회귀분석을 하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역량인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 모두에 대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거부적 양육행동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β 값이 각기 .426, .508, .524의 순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4.4%, 35.9%, 39.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사교성에 대해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예측력과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거부적 양육행동의 경우 유능성과 사교성에 대해 각각 β -.166, -.189의 부적 영향력이 있어서, 사교성에 대해 좀더 거부적 양육행동이 영향력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면 자녀의 사교성과 유능성이 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순주(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자녀의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Hassell(1988)의 연구에서도 이 두 변수가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여성이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잘하고,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아동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아동의

〈표 7〉 정신장애여성과 일반 여성의 양육행동요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종속변인 (사회적 역량)	독립변인 (양육행동)	영향력과 순위	
		정신장애여성	일반여성
주도성	온정적 양육행동	.426(1)	.475(1)
	거부적 양육행동	-	-
유능성	온정적 양육행동	.508(1)	.403(1)
	거부적 양육행동	-	-
사교성	온정적 양육행동	.524(1)	.571(1)
	거부적 양육행동	-.189(2)	-

잠재적 능력을 신뢰하고 격려하며, 합리적인 지도를 하는 온정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모델링하고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서비스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비난, 거부적 감정의 노골적 표현이나 무시, 간섭과 침해적 개입과 같은 거부적 양육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거부적 양육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가설 5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여보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검증된 요인의 bcta값과 순위로 비교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특히 자녀의 사교성에 대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거부적 양육행동도 유일하게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교성에 대한 일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중에서도 자녀의 사교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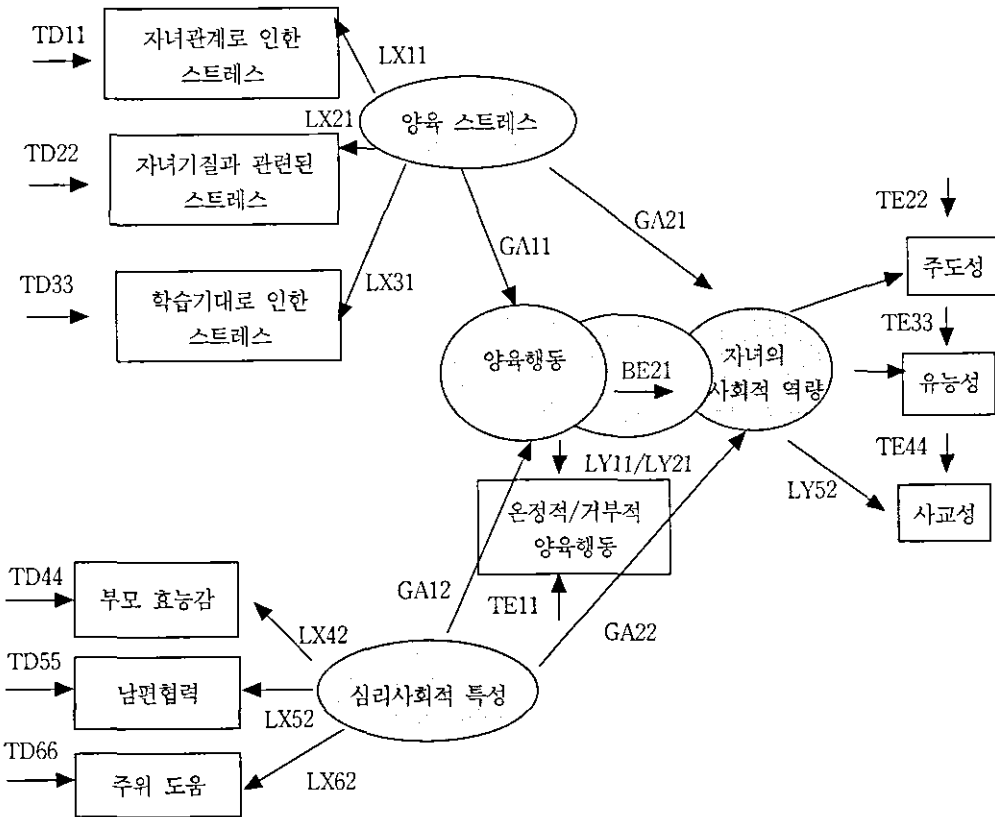
(6) 가설 6의 검증

가설6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바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이론적 모형인 〈그림 1〉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의 영향에 대한 관계구조는 다음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를 보면 기본모형에는 4가지 이론변인이 있는데, 이론변인으로 외생변인에는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특성, 내생변인에는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있다. 이 이론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은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측정하였다. 심리사회적 특성은 부모효능감,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으로 측정하였다.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녀의 사회적 역량은 주도성, 사교성, 유능성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이론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기본모형의 검증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신장애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검증구조



외생변인: 양육스트레스, 심리사회적 특징

내생변인: 양육행동, 자녀의 사회적 역량

외생변인의 측정변인: 자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X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X2),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X3), 부모효능감(X4), 남편협력(X5), 주위도움(X6)

내생변인의 측정변인: 온정적/거부적 양육행동(Y1), 주도성(Y2), 유능성(Y3), 사고성(Y4)

GA: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에 가지는 경로계수, BE:내생변인간 경로계수

LX: X에 대한 요인계수, LY:Y에 대한 요인계수, TD:X의 측정오차, TE:Y의 측정오차

① 기본 모형과 수정모형의 부합도 평가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측정변인간 상관관계자료를 대상으로 기본모형(*null model*)의 검증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형부합지수가 적합치에서 부족하였다. 이에 Lisrel 프로그램 결과에서 보여주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여 관련가능한 측정변인의 측정오차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서, 2회에 걸쳐서 모형수정을 한 결과 <표 8>과 같이 모형적합도가 좋아져서 수정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8>에서 보면 수정 모형2가 앞의 모형의 지수에 비해 카이자승치가 작아졌고, 확률치가 .05이상인 데다가, 기초부합치(GFI: *Goones of Fit Index*)와 현실적으로 조정된 지수인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표본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비표준부합치(NNFI: *Non-Normed Fit Index*) 및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가 .90을 넘거나 가까우며, RMR이 작아졌으므로 잘 부합되는 모형(*good fitting model*)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순목 1990; 양병화 1998). 특히 기초부합치가 .943으로 매우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관계모형은 모두 현실 자료에 잘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정신장애여성의 검증구조 모형 부합도지수¹⁾

	χ^2	df	P	GFI	AGFI	NFI	NNFI	RMR
기본모형	122.67	38	.00	.879	.790	.854	.844	.07741
수정모형1	85.58	37	.00	.918	.854	.898	.908	.0697
수정모형2	50.15	36	.08	.943	.892	.954	.954	.0522

② 모형분석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모형의 측정구조에서 경로 계수(B), 측정오차(SEB), 표준화계수(β)와 t값 및 SMC²⁾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측정구조에서 측정변인과 이론변인간의 경로로서, 측정변인이 이론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수들이다. 〈표 9〉에서 보듯이 모든 분석과정에서 이들 경로 중 LX11, LX42, LY11, LY32는 공통적으로 1.00으로 고정되었다.

이 모형의 이론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구조의 경로계수(B), 측정오차(SEB), 표준화계수(β)와 t값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이들 또한 이론구조의 경로가 통

1) 부합도평가를 위한 부합지수에 대한 아래의 기준은 이순목(1990)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χ^2 : 이 부합지수는 모델을 자료에 적용시킬 때 모델이 얼마나 현실자료에 잘 맞지 않는가를 나타내며, 카이제곱치가 크고, 확률치가 .05이하이면 통계적으로 모델이 현실자료에 부합안됨 (poor fit)을 의미한다.

GFI(기초부합치) : 회귀분석식 R²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어진 모델이 경험적 자료의 변량/공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지수가 .90이상이거나 이에 가까울수록 잘 맞는 모델 (good-fitting model) 이다.

AGFI(조정부합치) : 현실적으로 조정된 지수로 GFI지수기준과 같다.

NFI(표준부합치)는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지수로서, 0.9보다 크면 '잘맞는 또는 잘 부합하는' 모델 (good-fitting model) 로 해석한다.

NNFI(비표준부합치)의 분모는 가장 잘 안맞는 모델과 가장 잘 맞는 모델 사이의 일종의 거리를 의미한다. 분자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이 가장 안맞는 모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리를 의미한다. 보통 0과 1사이에서 있으며 0.9보다 크면 잘맞는 모델로 간주한다.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원소간 평균차이로서 분석자료의 매트릭스와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산된 매트릭스 간의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표본 매트릭스와 재생산된 매트릭스 간의 원소들의 평균적 차이를 의미한다. 극히 잘맞는 모델이라면 0에 가까우며, 잘 안맞을수록 보다 큰 양의 숫자를 갖는다.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자승치) 이는 0과 1 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측정변인의 움직임을 많이 포괄해주는 또는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론변수에 대해 측정변수가 설명하는 정도로 회귀식에서의 R-square와 같다. 즉 측정변인의 SMC가 높으면 이론변인의 좋은 측정변인임을 나타낸다(이순목 1990).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수들이며, 해당경로의 직접효과를 검증한다. 리즈렐 프로그램 결과 제시되는 이론구조 경로의 전체, 직접 및 간접 효과를 <표 11>에 제시하였으며, 이 또한 그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계수(B), 측정오차(SEB), 표준화계수(β)와 t값을 제시하였다.

<표 9>에서 측정구조를 먼저 분석하여 보면 각 측정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마치 요인분석에서의 요인부하량과 같은(양병화 1998:364) 기능을 하는 측정변인들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1$)하며, β 값의 범위가 .414~.897까지이므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다. 또한 각 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변량을 의미하는 SMC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관계구조검증을 위한 측정구조의 검증

이론변인	측정변인	B	SEB	β	T	SMC
양육 스트레스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LX11)	1.000		.488		.237
	자녀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LX21)	1.292	.268	.630	4.813***	.397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LX31)	1.527	.311	.744	4.902***	.554
심리사회적 특징	부모효능감(LX42)	1.000		.626		.427
	남편협력(LX52)	1.061	.162	.664	6.557***	.441
	주위도움(LX62)	.662	.148	.414	4.464***	.272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LY11)	1.000		.768		.589
	거부적 양육행동(LY21)	-.733	.112	-.563	-6.520***	.317
사회적 역량	주도성(LY32)	1.000		.858		.737
	유능성(LY42)	1.016	.071	.872	14.324***	.760
	사교성(LY52)	1.046	.070	.897	14.918***	.805

**P < .001

이론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가설 6-1의 검증을 위하여 이론구조에 있어서의 이론경로의 직접 효과에 대한 검증을 <표 10>과 같이 하였다. <표 10>에서 보면 이론구조의 검증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특징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β .8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이 되었으나,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β .868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신장애 여성의 양육관련 변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6-1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심리사회적 특징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론경로임이 검증되었다.

이에 가설 6-2를 검증하기 위하여 리즈렐 프로그램 결과 제시되는 이론경로의 전체효과와 간접효과가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을 보면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양육행동을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β .7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체효과도 β .629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6-2도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표 10>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관계구조 검증을 위한 이론구조의 검증

경로	B	SEB	β	T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GA11)	-.125	.247	-.079	-.505
심리사회적 특징 → 양육행동 (GA12)	1.021	.228	.833	4.471***
양육스트레스 → 자녀의 사회적 역량 (GA21)	-.089	.225	-.051	.396
심리사회적 특징 → 자녀의 사회적 역량 (GA22)	-.129	.654	-.094	-.197
양육행동 → 자녀의 사회적 역량 (BE21)	.971	.486	.868	1.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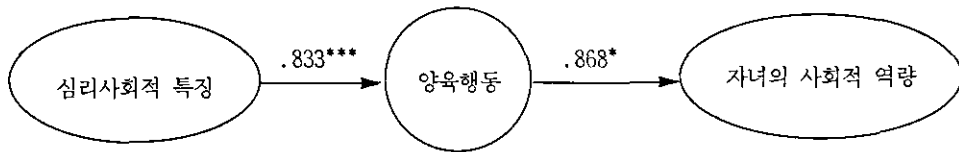
* $P < .05$ *** $P < .001$

〈표 11〉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 변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이론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B	SEB	β	T	B	SEB	β	T	B	SEB	β	T
GA11	-.125	.247	-.079	-.505	-				-.125	.247	-.079	-.505
GA12	1.02	.228	.833	4.471***	-				1.02	.228	.833	4.471***
GA21	-.089	.225	-.051	.396	-.121	.244	-.069	-.496	-.210	.235	-.110	-.894
GA22	-.129	.654	-.094	-.197	.991	.557	.723	1.698*	.862	.210	.629	4.603***
BE21	.971	.486	.868	1.695*	-				.971	.486	.868	1.695*

* P < .05 ***P < .001

〈그림 3〉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이론적 구조의 경로



* P < .05 ***P < .001

이에 따라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관계구조는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심리사회적 특징이 양육행동을 거쳐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이론적 관계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이론구조에서는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에의 경로 4개중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제외하여, 기본모형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구조가 심리사회적 특징이 양육행동을 경로로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표 11〉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정신장애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체효과가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여성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징 즉 부모효능감, 남편협력, 주위도움을 강화시키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보다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가설 검증과정에서 양육관련 변인 요인의 영향력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으므로, 이론적 관계구조에서는 검증이 안되었을지라도 정신장애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5.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의미

첫째, 본 연구 결과 정신장애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징이 양육행동을 통하여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여성 자녀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신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양육관련 변인별로 심리사회적 특징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양육스트레스 대처 지원 프로그램, 온정적 양육 행동 교육 프로그램의 정신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여성의 자녀가 일반여성의 자녀에 비해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에 따라,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해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학교차원에서의 이들 자녀의 사회적 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이들 자녀만을 발굴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일반 또래와 어울리는 보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도적인 리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도성 향상의 기회, 그것을 완수하는 성취경험을 통한 유능성 향상의 기회, 다른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는 사교적 능력의 향상의 기회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차원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자신에 대한 개별 접근 뿐 아니라, 교사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교육을 통하여 교사가 협조체계가 되어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정신보건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며,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에서의 학교를 통한 서비스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여성과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고,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여성이 생산직을 갖고 있을 때와 주부일 때에 부모효능감이 낮았다. 그러므로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계획해볼 수 있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제기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이 된 정신장애여성의 가족수입과 교육정도 및 낮은 취업률로 제기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정신장애여성의 가족수입에서 100만원 미만이 28.9%나 되고, 학력에서 중졸이하가 34.9%나 되는 것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정신장애는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회복이 되어 다시 진학하려고 해도 입시의 관문이 너무 좁아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인과 경쟁하여 진학하기는 너무 어렵다. 학력은 취업과 연결되어 있고, 취업은 경제능력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빈곤을 예언하는 결정적인 지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된 정신장애여성의 가족수입과 취업률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은 자녀의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도 빈곤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부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빈곤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신장애여성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빈곤과 교육기회에 대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지체장애인에게는 일정 비율범위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입학을 위한 특례입학 적용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장애인에게도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중도 휴학과 자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학기한을 무제한으로 열어준다든가, 학업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례관리제도 및 검정고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빈곤이 취업률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직업재활고용촉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야한다.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와 훈련수당의 지급, 가족생계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정신장애인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고, 나아가 정신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6.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의 주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여성 자녀들의 성장단계마다 추적 조사를 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변인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둘째, 표집과정에서의 제한점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표집과정에서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정신과의사가 선정함으로써 확률표집이 아닌 유의표집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또한 연구사례의 확보를 위해 연구집단은 서울특별시 및 전국 5대 광역시의 병의원 정신과 외래 및 입원병동과 낮병원 등을 통해 표집하였으나, 비교집단은 현실적인 표집의 어려움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 1곳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표집과정에서의 제한점이다.

셋째, 임상적으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자가평정을 토대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주치의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의해 그 대상이 선별되고 설문작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할지라도 설문내용을 지각하고 평정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비교집단인 일반 여성의 경우 건강하다는 것의 판단기준을 자신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이 없고 건강하다는 자기보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집단에서 전문가에 의한 유의표집과정에서 사회적 기능이 좋은 사람만이 선택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정신장애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연구함에 있어, 자녀의 기질 자체가 독립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어려움만을 변수로 보았기 때문에, 자녀기질의 독립적인 영향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섯째, 정신장애여성의 경우 진단별 표집크기의 차이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등을 제외하고 주요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장애와 기분장애(주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분류)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정신장애여성 전반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참고 문헌

- 구순주. 1996.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수. 1999. 《정신보건사회사업실천론》. 형설출판사.
- 김정진. 1984. "감정이입과 지각불일치의 관점에서 본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관계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자. 1994. 《정신보건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논총》, 61(2):305-329.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화. 1998.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한국통계청. 1996. 《인구주택전수조사》. 통계청.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_____.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_____.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407~4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191~21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83~96.
- Bonnie, D. 1993. "Growing up with a psychotic mother: A ret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2):177~189.
- Catherine, M. L., & Gotlib, I. H. 1991. "Adjustment of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A 10-month follow-up."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73~477.
- Christine, M. L. 1991. "Maternal depression: Effects on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in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6):693~706.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 K.,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 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2234~2247.
- Eisemann, M. 1985. *Psychosocial Aspects of Depressive Disorders*. Umea University Med.

- Diss., New Series No. 139, Umea Sweden.
- Elizabeth, B.H., Constance, H., Gayane, M., & Maren, J. 1993. "Communication styles of children of mother with affective Disorders, Chronic medical illness and normal control: A 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Child Psychology*, 21:51~63.
- Gottesman, I.I. 1991. *Schizophrenia Genesis*. NY, W.H. Freeman.
- _____ & Shields, J. 1966. "Schizophrenia in twins: 16 years' consecutive admission to a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2:809~818.
- Hassell, T. O. 1988.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locus control and interpersonal support and child's level of developmental functioning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iselotte, G., & Marie, G. 1993. "Young children of schizophrenic mothers: difficulties of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chiatry*, 63(1):16~27.
- Medinus, G.R. 1986. *Psychology: An Introduction* (5th Ed.). N.J.: Prentice Hall.
- Pagelow, M.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Praeger.
- Mondell, S., & Tyler, F.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73~78.
- Perris, C., Williemi, A., & Martain, E.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Wiley.
- Piatana, R.C., & Egeland, B. 1990.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d sample: Result of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329~336.
- Simmons, R.L., Beaman, J., Conger, R.D., & Chao, W. 1993. "Stress, Supports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85~398.
- Simmons, R.L., Lorenz, F.O., Conger, R.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263~276.